

# 국 어

문 1. 다음 낱말을 국어사전의 올림말(표제어)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면?

ㄱ. 웬일      ㄴ. 왜곡      ㄷ. 와전      ㄹ. 외가

- ① ㄷ → ㄱ → ㄴ → ㄹ
- ② ㄷ → ㄴ → ㄱ → ㄹ
- ③ ㄷ → ㄴ → ㄹ → ㄱ
- ④ ㄷ → ㄹ → ㄴ → ㄱ

문 2.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다른 것은?

길상이는 어쩐지 상현이 도령이 싫었다. 이심전심으로 그쪽에서도 길상이 싫은 모양이었다.

— 박경리, ‘토지’ 중에서 —

- ① 교외별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심심상인
- ③ 격화파양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염화시중

문 3. 문장 부호를 옳게 사용한 것은?

- ① 예로부터 “민심은 천심이다”라고 하였다.
- ② 너는 언제 왔니, 어디서 왔니, 무엇하러?
- ③ 문장 부호 — 마침표 · 쉼표 · 따옴표 · 묶음표 등
- ④ 나는, 솔직히 말하면,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.

문 4.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15세기 국어의 모음 ‘ㅐ, ㅑ, ㅕ’ 등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릿값(음가)이 바뀌었다.
- ② 15세기 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‘가’와 ‘이’가 있었지만, 점차 ‘이’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.
- ③ ‘어리다’라는 단어의 뜻은 ‘나이가 적다’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‘현명하지 못하다’로 바뀌었다.
- ④ 15세기 국어는 방점으로 소리의 장단을 표시하였으나, 그 장단은 점차 소리의 높낮이로 바뀌었다.

문 5. 밑줄 친 말 중 표준어인 것은?

- ① 온몸에 부시럽이 나다.
- ② 길길대며 농지거리들을 주고받다.
- ③ 우리는 뽕레야 뽕 수 없는 사이야.
- ④ 그런 케케묵은 이야기는 꺼내지 마.

문 6.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우리 ∨ 민족의 ∨ 염원은 ∨ 통일뿐이다.
- ② 무엇이 ∨ 틀렸는 ∨ 지 ∨ 답을 ∨ 맞추어보자.
- ③ 우리는 ∨ 생사 ∨ 고락을 ∨ 함께 ∨ 한 ∨ 친구이다.
- ④ 이번 ∨ 시험에서 ∨ 우리 ∨ 중 ∨ 안 ∨ 되어도 ∨ 세 ∨ 명은 ∨ 합격할 ∨ 것 같다.

문 7. 아래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<예문>의 괄호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?

— <뜻풀이> —

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.

— <예 문> —

자넨 이미 (      )으로만 달아 있는 청년이 아니야. 현실에 몸담고 있는 성인이란 말일세.

— 이문열, ‘영웅 시대’ 중에서 —

- ① 공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망상
- ③ 상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이상

문 8.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가장 잘 다듬은 것은?

㉠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, ㉡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, ㉢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, ㉣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 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, (중략) 천하 하물이던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.

— ‘기미 독립 선언서’ 중에서 —

- ① ㉠: 5천 년 역사의 권위를 훌륭하게 생각하여 이를 선언함이며
- ② ㉡: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널리 퍼서 두루 밝힘이며
- ③ ㉢: 변함없는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늘 주장함이며
- ④ ㉣: 인류적 양심의 억눌림이 원인이 된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

문 9.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?

다시 봄이 오니 온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 생명이 넘쳐난다.

- ① 다시 건강이 좋아져야지.
- ②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해 봐.
- ③ 다시 보아도 틀린 곳을 못 찾겠어.
- ④ 웬만큼 쉬었으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.

문 10. 제시된 말의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원론[이 : 원논]
- ② 동원령[동 : 원녕]
- ③ 임진란[임 : 진난]
- ④ 상견례[상 : 견네]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[문 11 ~ 문 12]

‘있다, 없다’는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, 이를 중요시하여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. 예컨대,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‘- 는’이 붙을 수 있고, 형용사에는 ‘- 는’이 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, ‘있다, 없다’는 ‘있는, 없는’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. 그렇다고 이 둘이 의미상으로 ㉠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인가 하면, 그렇지도 않으니, 동사, 형용사 품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. 따라서 동사, 형용사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품사로 존재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.

그러나 이 두 단어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. 예컨대, ‘있다’는 ‘있는다, 있어라’라는 표현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‘없다’는 ‘\*없는다, \*없어라’가 불가능하니,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 본다.

— 이관규, ‘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’ 중에서 —

문 11. 밑줄 친 말 중 ㉠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요즘 별일 없으시죠?
- ② 그는 귀신이 없다고 믿었다.
- ③ 그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.
- ④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.

문 12.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분석하여 차례대로 제시한 후, 이 두 주장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절충하여 제3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.
- ②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.
- ③ 다른 사람의 견해를 먼저 제시한 후, 그것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.
- ④ 범주가 이질적인 두 대상의 특수한 공통점을 발견하여 다른 점에서도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.

문 13. 통사적 합성어인 것은?

- ① 큰집
- ② 덮밥
- ③ 늦더위
- ④ 검붉다

문 14. 겹문장인 것은?

- ① 없어.
- ②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?
- ③ 그런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해?
- ④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.

문 15. 문맥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?

우리는 곧잘 ‘우리’를 앞세우지만, 우리의 ‘우리’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. 그것들은 다만 ‘나’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. 오히려 내가 확장된 ‘우리’는 그 이기심과 배타성이 더욱 강화되고 독해진다. ‘나’와 ‘나와 관계있는 이들’은 하나로 묶고, 그렇지 않은 이들은 철저히 ( )하는 개념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. 우리의 ‘우리’는 더 넓어지고, 한없이 넓어져야 한다.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편함이 어디 한두 개인가. 울타리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성품이라면, 그 울타리를 한없이 키워 버리는 것은 어떨까? 지구와 우주 역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편함이다.

- ① 배빈(排濱)
- ② 배설(排泄)
- ③ 배제(排除)
- ④ 배척(排斥)

문 16. (가)의 ‘적장’의 관점에서 볼 때, (나)의 ‘리처드 닉슨’에게 필요한 언어 전략이 아닌 것은?

(가) 일찍이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마르코만니 인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, 그는 군대를 전지에 파견함에 제(際)하여 그의 병사들에게 말하되,  
“나는 너희에게 내 사자를 동반시키노라!”  
라고 하였다. 이에 그들은 수중지대왕(獸中之大王)이 반드시 적지 않은 조력을 할 것임을 확신하였다.  
그러나 많은 사자가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였을 때 마르코만니 인들은 물었다.  
“저것이 무슨 짐승인가?”  
하자, **적장**이 그 질문에 대하여 왈  
“그것은 개다. 로마의 개다!”  
하였다. 여기서 마르코만니 인들은 미친개를 두드러 잡듯이 사자를 쳐서 드디어 싸움에 이겼다.  
(나)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**리처드 닉슨**이 한창 사임 압력을 받던 당시의 일이다. 이때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**리처드 닉슨**은 전국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.  
“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.”  
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.

- ① 말로 온 공을 갚음을 명심한다.
- ② 말은 꾸밈 따위로 감을 명심한다.
- ③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름을 명심한다.
- ④ 말이란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름을 명심한다.

